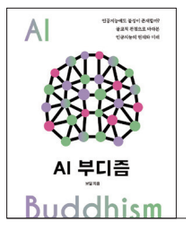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0~11/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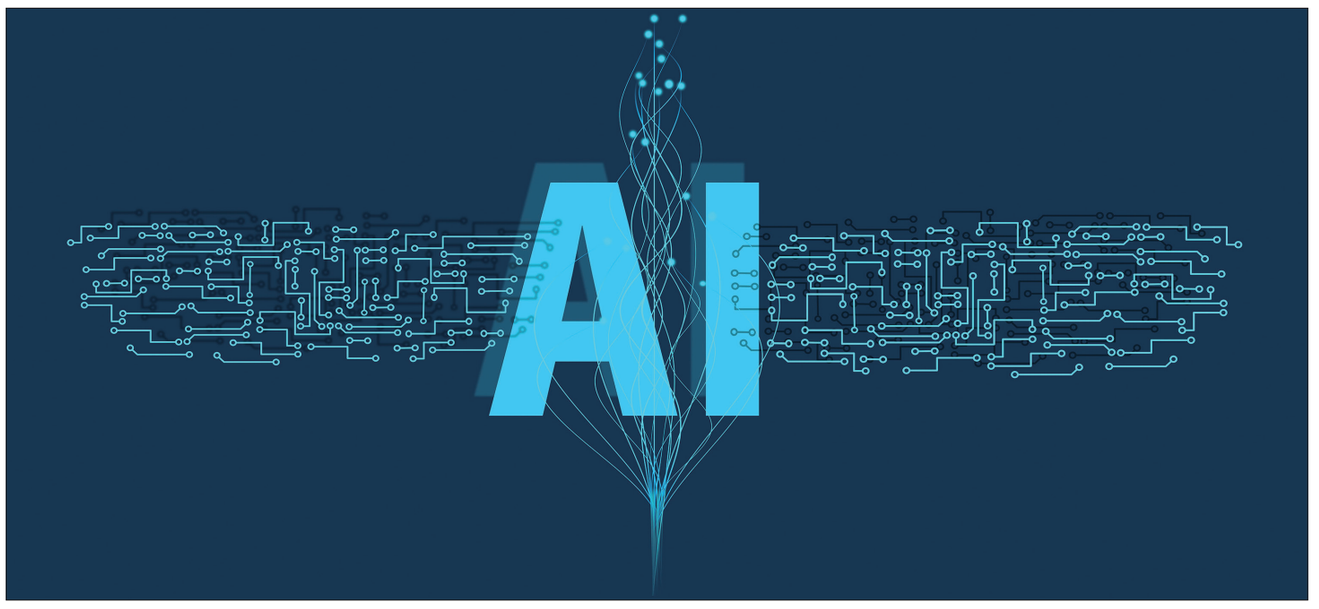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자식

책세상

"인공지능에도 과연 불성 존재할까?"



AI부디즘
보일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적 관점서 바라본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시절인연(時節因緣). 이 말은 시기와 인연이 맞아 떨어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일도 성취되고 만날 사람도 만나는 것이다. 또한 시절 인연은 무상함, 바로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는 위기일수도 기회일수도 있다. 이같은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변화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다가오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저자는 자신이 불교와 인공지능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시절인연'이라고 지칭한다. 해인사승가대학 학인 시절, 저자는 문득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라는 소박한 질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이중 충격(Double shock)'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삶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붓다는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훈에서,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은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의 모습에 대해 산에 사는 수행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룬 이야기"이자 "데이터 기술로 모든 것이 대체될 수 있는 세상"에서 인간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사유를 함께 담아냈다.

인공지능 시대, 새변화 물결이 밀려온다

'인공지능(AI)'을 떠올리면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 연상된다. 그와 동시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기계적 요소가 전혀 없는가'를 되묻는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사유, 혹은 고찰은 'AI 부디즘'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로 압축되었다. 인공지능과 불교.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사유"라는 공통 기반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점은 '인간 대 기계'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 이렇게 저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인공지능에게 길을 묻다

1부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놀라운 기술의 발달로 점점 모호해지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언젠가 인공지능에게 던지게 될 질문"들에 관해 언급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뿐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 등 현대의 첨단 기술이 불러올 영향과 논란, 윤리적 문제 등을 예로 들며 갈수록 우리

AI에 대한 인간 시선과 마음조명
AI시대 불교 준비할 대안도 짚어
승가 교육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

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이러한 변화가 "괴물이 될지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들어낼지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2부 '디지털 자아, 나는 무엇인가'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Metaverse)'이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기술은 "원본으로 간주되는 현실 세계의 아우라(Aura)를 깨뜨리고 그 실재성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결국 가상 세계이든 현실 세계이든 어떠한 상(相)에 머물거나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3부 '인공지능에 길을 묻다'는 의료 인공지능, 나노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기술의 범위와 무한한 가능성이 소개돼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불교와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불교는 지금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의존한다는 "연기(緣起)의 도리"를 바탕으로 저자는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혁신 기술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질문, 또한 'AI 시대'에서 승가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한다.

결국은 인간 마음이자 사유이다

'AI 부디즘'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를 통해 독자들은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다가오는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보일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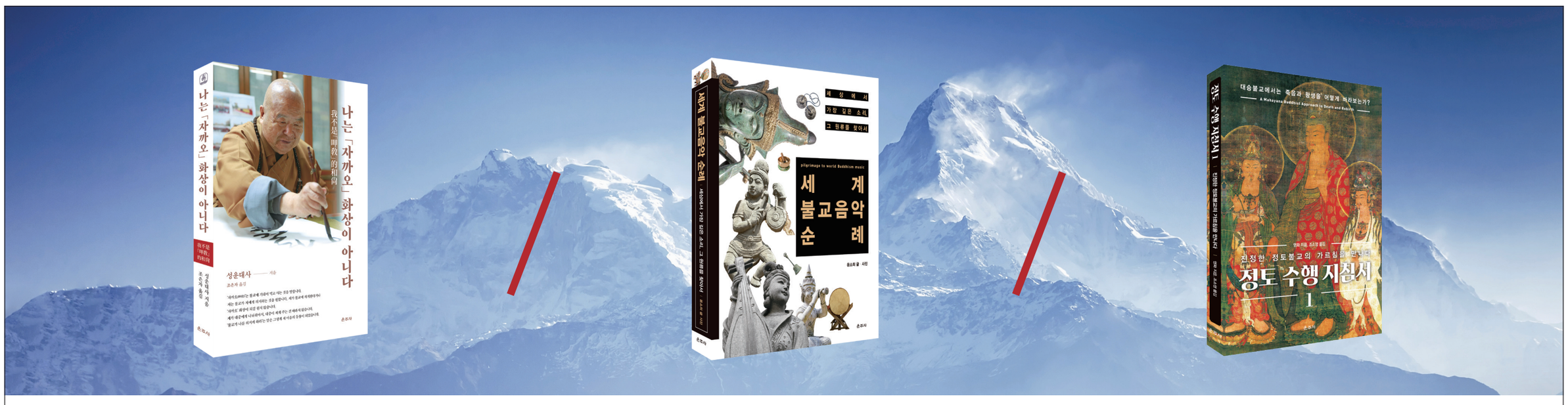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서울대 철학과 석사 졸업 및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해인사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인 시절, 전국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연구〉대상 수상을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시대 속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강연, 법문을 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禪)문답 알고리즘의 데이터 연구〉 〈유식체계에 입각한 AI 딥러닝 작동원리 연구〉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과연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일까.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은 불성이 머무는 소재가 아니라 그 불성 자체가 흐르는 모습이다. 사라질 수도,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흐름 말이다."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中

"인공지능의 업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우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법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악업을 짓지 말자면서도 그것이 현실 공간 속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네트워크 공간을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하듯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 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력과 폭언, 인종차별과 성적 비하 등 수없이 많은 일들은 현실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의식을 덜 느끼면서 행해진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업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존재이다. 그러면 인공지능만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안해낸 새로운 법계이다. 인간과 인간만이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인공지능의 업과 윤회〉中

"〈화엄경〉 제 40권에서는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고 설한다.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탐욕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지 지혜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사색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 단지 욕망 확장의 도구 또는 지식의 습득과 소비 도구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붓다와 역대 조사의 지혜를 활용하는 도구로 개발해 갈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챗봇, 선문답으로 심리치료를 하다〉中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불교음악 순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글, 사진/사륙배판/440쪽/값 28,000원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